

전남 곳곳 산단 조성 ‘좌초’

무안산단 백지화·한중산단 대폭 축소·나주미래산단 사업포기

전남도가 지역 경제 회생의 수단으로 삼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 구축 사업이 곳곳에서 삑걱거리고 있다. 금융경색으로 시작된 경기침체와 시행사들의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개발사업이 아예 취소되는가 하면 축소·연기되는 등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18일 무안기업도시의 국내 단지 조성 예정 지역인 무안군 현경·망운면 일대(15.25km)가 개발행위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참여사들의 경영난에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분위기가 위축되면서 전담법인 설립을 위한 법정자본금(1241억)을 확보하지 못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단 개발계획을 기간(5년)내에 승인받지 못해 결국 조성 계획 자체가 백지화된 것이다.

지난 2005년 1조7600억원을 투입, 기업도시내 항공물류단지(0.7km)·국

내산단(1.7km)·통합의학단지(1.1km) 등을 조성해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세웠던 야심찬 계획은 불과 5년 만에 허무하게 막을 내렸고 그동안 애꿎은 주민들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한·중 국제산업단지도 비슷하다. 무안군 청계·현경면 일대 17.7km에 차이나시티(1.5km)·도소매유통단지(1.8km)·제조생산단지(2.5km) 등이 들어서는 국제산업단지를 만들며 동북아 중심도시로 바뀌려하겠다는 계획도 지난 9월 14일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른 최소 개발면적(5km)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나마 현재까지도 산단 조성을 위한 PF(Project Finance)가 이뤄지지 않아 애초 사업기간(2005~2012년)내 완공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나주시가 왕곡면 덕산·장산·양산리 일대 295만4000㎡에 금속가공 및 전자부품업체 등을 유치해 특성화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미래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민간건설사 중심으로 설립했던 특수목적법인(SPC)이 해체, 사업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좌초됐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지난 2007년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3000억원을 들여 개발·분양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3년 동안 공장·기계가 돌아가기는 커녕 첫 삽도 못꿨다.

나주시가 전남개발공사에 제안한 산단 개발을 위한 SPC 설립 참여 요청도 거절당해 현재는 방치된 땅이나 다름없다.

이들 시행사가 참여해 남평을 동사리 일대 31만3312㎡를 환경친화적 주거·상업기능을 포함한 자족형 거점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사업기간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해남·목포 일대를 서남권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신산업중심지로 발돋움시키겠다며 추진했던 화

원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최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를 내고 2010년 말까지로 늦췄다. 강진성전산단도 규모가 축소됐고 신안군 압해면 일대 1335만㎡(404만평)에 걸쳐 조성하는 신안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 PF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지역내 산단 조성 계획이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 입지 여건이 열악해질수록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및 유능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들이 지방산단에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화된 산단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암 F1 일대 관광레저도시 개발 승인

삼포지구 문광부 심의 통과·내년 하반기 본격 공사

F1(포틀러 원) 코리아그랑프리가 열리는 영암 F1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등이 포함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일명 J프로젝트) 삼포지

구의 개발계획안이 정부의 심의를 통과했다.

1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암 F1 국제자동차경

주장 주변 일대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했다.

이에 따라 삼포지구는 내년 실시계획 승인 후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포지구는 F1 경주장 및 모터스포츠 도시로 조성한다는 개발 구상하에 민간기업(KAVO, 전남개발공사)이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난전리 일대 428만8000㎡ 면적에 2021년까지 총 1조8715억원을 투자해 약 1만명의 상주인구와 40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정주형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F1 경주장과 F1관련 설비단지, F1연구·교육시설, 마리나 시설, 방송·통신시설, 주거·교육시설 등을 설치해 자연과 함께 젊은 도시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자동차 경주시 발생되는 소음의 영향권을 고려해 서킷 외곽에 마운딩(언덕) 조성과 나무를 심는 등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했다.

문광부는 “이번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계기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기여함은 물론, 건설단계에서 4조3000억원의 생산효과와 4만여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김황식 총리 23~24일

F1 등 광주·전남 방문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는 23~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전남을 방문한다.



18일 광주시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3일 영암 F1 경주장을 찾아 박준영 도지사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예선경기를 관람한다. 이어 광주로 이동해 광주·전남지역 기관장 100여명과 함께 만찬을 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24일 오전 승촌보 등 영산강사업 현장을 살펴본 뒤 상경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김 총리의 고향 방문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림

전세계 3천만 관객의 돌풍!

MAMMA MIA!

ABBA®음악으로 만든 최고의 뮤지컬

12월 3일(금)~5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티켓박스 오픈!!
오늘 오후 2시

전 세계에서 3천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명품 뮤지컬 '맘마미아'가 광주를 찾아 옵니다. 'Dancing Queen', 'I have a dream' 등 인기 그룹 아바의 히트곡 22곡을 엮은 뮤지컬 '맘마미아'는 1999년 런던에서 초연 후 전 세계에서 2조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인 작품입니다. 2004년 한국에서 초연된 '맘마미아'는 지금까지 1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 특히 40~50대 중년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며 새로운 공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 공연에는 한국 최고의 뮤지컬 스타 최정원·남경주를 비롯해, 2006년 초연 때부터 무대에 올랐던 이경미가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2010년 12월 3일(금)~5일(일) 총 5회 공연
-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최: 광주일보 KCTV 광주방송
- 주관: 공연마루
-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6
- 인터넷예매: 티켓마루(www.ticketmaru.co.kr), 인터파크, 광주은행



영암 F1 D-3

VIP 사교장 될 '패독 클럽'

세계 거물급 인사 1000여명 방문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로

22일 영암에서 열리는 F1(포틀러원) 국제자동차 대회는 단순한 자동차 경주 차원을 뛰어넘는 '세계 경제·외교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국내외 경제계 거물급 인사들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 등 주요 외교사절 등이 대거 영암을 찾아 F1 경주를 즐기면서 국가 간 경제 현안이나 기업간 투자·협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 한스올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 대사, 마시모 안드레아 레제리 주한 이탈리아 대사, 힐턴 앤서니 데니스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토머스 쿠퍼 주한 스위스대사 등 주한외교사절도 총출동해 경주도 보고 국가간 경제현안이나 기업간 투자·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경주장을 직접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둥서둥 GS 칼텍스 회장, 윤석경 SK건설 부회장 등도 경주장을 찾는다. 국내 전기차 회사인 CT&T 이영기 대표이사 등도 참석한다.

이들은 국제 비즈니스계의 귀빈(VIP)들을 초청해 F1 대회를 '비즈니스의 장(場)'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장 토드(Jean Todt) 국제자동차연맹(FIA) 회장, 버니 에클레스톤(Bernie Ecclestone) F1 매지니먼트(FOM) 회장, 비제이 말리아 포스인디아팀 대표, 토니 페르난데스 로터스 F1팀 대표 등 F1 대회를 움직이는 '거물'들의 영암 입성이 예정돼 있다.

수천만달러의 연봉을 받는 미하엘 슈마허(메르세데스 GP 페트로나스·20일), 루벤스 바리케로(AT&T 윌리엄스·20일), 카를 찬독(HRT·21일), 야노 트롤리(로투스·22일), 아드리안 수틸(포스 인디아·21일) 등도 영암을 찾는다.

/영암 F1 특별취재팀=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F1 레이서들이 본 영암 서킷 ▶18면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보통고 신입생모집
10월20일~25일 원사접수
대한민국 최고의 선명함을 모셨습니까?
전국 최상위 특트제단!
전교생수를 최첨단 명품 기숙사 건축
보통고 입학은 정학급 제도!
2010 교과부 선정 영어리더 학교!
-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보통고등학교
입학문의 (062) 940-8800

2011학년도 제1학기 교수 초빙 접수 2010년 11월 3일(수)~5일(금)

문의전화 061. 330. 3024~5 동신대학교 교무처 교무연구팀 홈페이지 www.dsu.kr

동신대학교 |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 순천한방병원 | 목포한방병원 | 동신한방병원(서울) | 동신대 종합사회복지관 |